

#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Dual-Earner Couple's Household Work Time and Life Satisfac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 채 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 기 영\*\*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Lu Cai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ersity  
Professor : Lee, Ki-Young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tudying dual-earner couple's household work time and life satisfaction in modern times. To reach this goal, dual-earner couple's variable of society and population, income for working hours, attitude of sex's role and working hours time were classified as individual variable of study model. In the end of 2000, positive analysis was completed through dual-earner couple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paired-samples T 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o 112 Korean couples in "Research material for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s time use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performed by Lee, Ki-young, along with 3 person in the end of 2000. The time of household work performance at home at this stage is about 30 hours. 90% of 30 hours was given by housewife who was working for another job. In the aspect of dual-earner couple's life satisfaction, the life satisfaction is a little over the level of average. In variables couple's life satisfaction, wife's life satisfaction was additionally influenced by variable of wife's profession, age difference of couple, wife's household work time husband's household work time and wife's sex-role attitudes in order. Husband's life satisfaction was perfectly influenced by his level of education, his household work time and wife's sex-role attitudes.

▲주요어(Key Words) : 맞벌이부부(dual-earner coupl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가사노동시간(household work time), 수입노동시간(working time for income), 성역할태도(sex-role attitudes)

### 1. 서 론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회구조와 가정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수많은 기혼여성이 가정 밖으로 나가서 취업함으로써 가정경제의 향상을 가져오고 자신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역할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인인 동시에 여전히 '주부'이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주부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두 가지 직업을 겸하며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다른 역할갈등, 시간갈등 등을 경험하는데 취업주부가 겪는 갈등들은 주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가져온다.

취업주부가 직면한 문제 중 가사노동의 부담과 이로 인한 시간의 부족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서 이는 맞벌이부부에게 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실제 전일제 취업주부의 평일 취업시간이 평균 9시간 2분(이기

\* 주 저 자 : 채 로 (E-mail : clxx1997@yahoo.ac.kr)

\*\* 교신저자 : 이기영 (E-mail : leek@snu.ac.kr)

영 외, 2001)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주당 가사노동부담이 83.5% (이기영 외, 2001)나 되어 전일제 취업주부에게 일과 가정의 노동은 이미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역할과중,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은 취업주부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김경신·김오남, 1996; 조희금, 1999 등).

한편 주부의 취업 증가, 성역할의 경계 붕괴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맞벌이부부의 경우가 홀벌이가정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 참여율은 총가사노동의 10.6%에 불과하며(이기영 외, 2001)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 맞벌이부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홀벌이가정의 남편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이기영 외 2001). 이는 맞벌이부부간에 가사노동분담과 참여가 상당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불균등은 맞벌이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맞벌이부부의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사노동분담에서 부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남편의 경우가 69.1%에 달함으로써(기은광, 2003)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의 인지와 실행간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만족도의 향상은 취업주부 및 그들 남편의 공동적인 목표이다. 맞벌이가정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수입증가를 가져오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가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을 통한 맞벌이가정의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주부가정의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역할갈등 등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여러 연구에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고(임정빈·이종숙, 1989 등) 남편과 비교할 때 부인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광희·조병은, 1993 등).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이것이 남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Freudiger, 1983; 최규련·서동인, 1995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 연구가 주로 대상자 본인의 수입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이 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부 서로의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수행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부간 상호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함으로써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수행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시간과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와 관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맞벌이가정에 있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맞벌이가정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기혼여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이 여전히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맞벌이가정의 가사

노동시간의 합리적 배분, 가사노동갈등의 감소, 생활의 질의 향상 등의 분야에 대한 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맞벌이가정의 생활복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 1.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

#### 1)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수행실태

맞벌이가정이 부인 취업으로 인해, 가정 경제 구조, 시간 구조가 홀벌이가정과 다르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 양상과 홀벌이가정은 차이가 있다. 홀벌이가정에서는 성역할분업이 명확해서 남편은 가정 경제수입을 담당하고, 부인은 가사노동을 담당하여 가사노동분담의 문제가 적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는 다르다. 가사노동분담은 맞벌이가정에 존재하는 첨예하고도 실질적인 문제다. 이론적으로 보면 부인 취업, 성역할분업의 붕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 투입, 가정 경제수입의 증가로 인해 남편은 자연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 가사노동분담은 홀벌이가정과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에 있는 문제는 홀벌이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행하는 수준도 다를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수행의 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맞벌이부부 가사노동시간 수행의 수준은 부인의 경우 <표 1-1>와 같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전업주부보다 평일에 약 4~5시간 정도가 적지만 휴일은 전업주부와 비슷하다<sup>1)</sup>. 취업주부는 가사노동 영역 중 식생활관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가족돌보기시간도 상대적으로 많다.

<표 1-2>에서 맞벌이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홀벌이가정의 남편 가사노동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sup>2)</sup>. 단지 휴일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1시간 정도로 조금 많다. 그러나 20년 동안 맞벌이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1) 윤복자(1975)의 연구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8시간 24분, 휴일 7시간 24분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영(1994)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8시간 24분, 휴일 5시간 48분으로 나타났다.

2) 윤복자(1974)의 연구에서 전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36분, 휴일 1시간 6분이며, 이기영 외(1995)의 연구에서는 평일 14분, 휴일 1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

<표 1-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자 (조사시기)	윤복자 (1974)		한경미 (1990)		이기영 외 (1995)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식생활관리	1:21	1:24	1:33	2:21	1:27	1:51
주생활관리	0:36	1:24	0:31	1:01	0:26	0:50
의생활관리	0:54	1:48	0:23	0:47	0:14	0:39
가족돌보기	0:18	0:42	0:53	1:35	1:06	1:32
구매·가정관리	3:54	4:06	0:14	0:51	0:07	0:31
계	6:54	9:24	3:34	6:35	3:20	5:23

출처 : 김의숙·이기영(2002), 『가정생활과 관리』와 김의숙 외 (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에서 재구성.

<표 1-2>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자 (조사시기)	윤복자 (1974)		이기영 외 (1993)		이기영 외 (1995)		조희금 (1996)	
	취업주부		취업주부		전일제 취업주부		사무직 취업주부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식생활관리	0:00	0:00	0:02	0:08	0:05	0:03	0:04	0:10
주생활관리	0:06	0:24	0:06	0:31	0:01	0:30	0:04	0:19
의생활관리	0:00	0:00	0:00	0:05	0:00	0:04	0:02	0:03
가족돌보기	0:24	1:42	0:12	0:53	0:16	1:20	0:24	2:03
구매·가정관리	0:00	0:06	0:02	0:34	0:01	0:11	0:01	0:03
계	0:30	2:12	0:21	2:10	0:22	2:08	0:35	2:38

출처 : 김의숙·이기영(2002), 『가정생활과 관리』와 김의숙 외 (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에서 재구성.

2) 가사노동분담 관련 가설

가사노동시간의 수행은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사노동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생활의 양상이 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제공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밖에 가사노동시간을 통해서 가족원간의 관계가 반영되기도 한다.

가사노동의 수행과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상대적 자원가설, 성역할관념가설,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이 가설들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분담에 대한 분석에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상대적 자원가설은 대부분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분담에 대해 상대적인 자원의 측면으로 고려함으로 시작된다. 상대적 자원 관점은 부부간의 평등한 교환의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Blood & Wolfe(1960)에 의해 최초로 전개된 가설이다(김의숙·서창원, 1986에서 재인용). 상대적 자원가설의 기본적인 전제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시 부부 각각의 물질적 자원에 대한 비교에 의해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연구에 적용하면 남편과 부인 중 사회경제적 자원 또는 물질적 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가사노동시간

은 감소한다는 것이다(Kamo, 1988, 최수선 1995에서 재인용). 즉 부부소득, 교육수준, 직업지위가 높은 쪽이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가설의 선행연구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예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남편에 비해 높을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lair & Lichter, 1991, 최수선, 1995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verman, 1985, 최수선, 1995에서 재인용).

성역할관념가설은 여성이 일찍부터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규정된 일들을 하도록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성에 기초한 전통적 노동분담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 부부는 평등적 성역할 지향성이나 가족구조를 가진 부부보다 좀 더 분리된 노동분담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이기영·김의숙, 2002). Hiller(1984)는 배우자 중 하나 또는 둘 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해 부인과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과제도 이러한 개인적으로 성 정형화된 관념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았다(최수선, 1995에서 재인용). 이 가설은 남편의 가사분담을 더 잘 설명해 주는데, 특성역할을 고정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역할을 상호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남편들이 가사를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 또한 이 가설은 성규범과 관련한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남성역할에 대한 주부의 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주어, 남성역할에 대해 주부가 전통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감소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증가시킨다(이기영·김의숙, 2002).

맞벌이가정은 한편으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을 행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성역할의 분업의 타파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의 공동적 분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연구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다.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은 가정 내의 상이한 환경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가설로서 그 기본적 전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즉 이용가능한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Coverman, 1985, 최수선, 1995에서 재인용). 즉 이 가설에 따르면, 가사노동의 수요량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이용가능한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수요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정과 홑벌이가정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예로 자녀수가 같은 상황). 그러나 이용가능한 자원의 면에서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맞벌이가정의 시간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된다(윤명희·임정빈, 1985).

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고찰

본 연구는 위의 가설에 근거하여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 수입노동시간변수, 성역할태도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 ① 연령

연령에 따라 가사노동의 요구, 가사노동 능력,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부부연령과 가사노동은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amo(199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남편은 연령과 가사노동분담이 부적 관계이고 일본의 남편은 오히려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부부에 있어 연령과 가사노동시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갖게 되어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 ②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수행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치한다. 즉,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이정수, 1984 등) 그들의 남편은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다(송혜림, 1988).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이 증가한다(송혜림, 1988; 조미환, 1998 등).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③ 직업 지위

직업지위의 영향을 보면 남편이 전문직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Coverman, 1985, 최수선, 1995에서 재인용) 전문직 남편을 둔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Berardo et al., 1987, 성영애·양세정, 1996에서 재인용). 그리고 부인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직업지위가 낮거나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최수선, 1995).

#### ④ 소득

소득은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치된 경향을 보였는데 남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이다(허경옥, 1994 등). 동시에 맞벌이가정에서는 부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차성란, 1998) 가사노동분담의 비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금, 1998 등). 소득은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소득의 증가는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가사의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맞벌이가정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 (2) 수입노동시간변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유한한 자원이므로 수입노동시간이 증

가하면 다른 생활영역에 사용된 시간은 감소된다. 이것은 가사노동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수입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며,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선행연구를 통해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이정수, 1984, 허경옥, 1994; 차성란, 1998 등). 또한 남편의 경우도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수, 1984; 이승미, 1994; 차성란, 1998; 조희금, 1998 등).

### (3) 성역할태도변수

성역할태도도 가사노동시간과 매우 밀접하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남편의 진보적인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송혜림, 1988; 이승미, 1994; 허경옥, 1994; 조미환, 1998),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송혜림2000). 특히 Kamo(1994)의 가사노동분담 비교 연구에서 서양문화권인 미국 뿐 만 아니라 동양문화권인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한다. 한편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송혜림, 1988),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부인의 가사노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검증도 필요하다.

## 2.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

### 1) 생활만족도의 개념 및 이론

생활만족도란 자신의 생활요구, 기대의 실현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주관적인 느낌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거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리가 멀수록 불만족스럽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족스럽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 가사노동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기본 관점은 인간은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는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가족, 친구, 사회단체, 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이 이론을 취업부부의 생활만족도 연구에 적용하면 부부 한 쪽의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며(예: 남편 가사노동의 분담), 이에 따라 부부 서로간의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그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경제학적 시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일단 교환이 이루어지면 행위자가 호혜적 보상적 행동체계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이론을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적용하면 맞벌이부부는 취업을 통한 보상(예: 가정의 수입, 부인의 직업만족감과 자신감)과 비용(예: 역할갈등, 시간갈등, 가사

노동시간의 부족)의 균형 정도에 따라 부부의 건강과 복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상이 비용보다 많을 때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이론은 사회갈등과 인간갈등 이론에서부터 가정에서의 갈등을 연구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취업주부는 다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역할과중이나 시간갈등, 가사노동분담갈등 등으로 인하여 역할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역할 간, 혹은 역할 내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역할갈등은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맞벌이부부는 생활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전통적인 역할을 타파하려는 기대가 홀벌이가정보다 클 수 있으며(예: 남편에게 거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 이에 따라 맞벌이가정의 남편 역할이 도전을 받는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가 겪는 역할갈등이 홀벌이부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고찰

앞의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역할태도변수, 수입노동시간변수, 가사노동시간변수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시간변수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다음 부분에서 따로 설명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가사노동시간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 ① 연령

연령이 다르면 정신적인 수요와 생리적인 수요가 다르고 생활에 대한 느낌도 다르다. 선행연구 결과 기본적으로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임정빈·이종숙, 1989; 최동숙, 1991; 김경숙, 1993). 그런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인의 취업 목적이 대부분 가정의 생계비를 보충하려는 상황 아래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인 추세이고 가계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므로 비록 결혼만족도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생활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다. 또 부부의 연령차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연령차가 맞벌이부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②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사람의 직업, 소득, 사회적 지위, 배우자의 선택, 사고방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정빈·이종숙, 1989; 조미환·임정빈, 1991; 한경미·황덕순, 1990; 이선미, 1991; 김재경·문숙재, 1992; 김경숙, 1993). 맞벌이부부의 교육수준은 직업 및 소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직업 지위

직업지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임정빈·문숙재(1988)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김재경·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지위가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박경숙·김명자, 1991; 이연숙 외, 1991).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와 부부의 결혼만족도간에는 곡선의 관계라고도 하였다(Aldous et. al., 1979, 이현아, 1994에서 재인용). 직업 지위가 높은 주부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데(최규련, 1984; 신성자, 1981), 한국에서는 비록 취업주부가 취업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다중 부담을 경험하지만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보람을 느껴 일의 부담을 완화하며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 ④ 소득

소득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활만족도와 관계는 연구자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적인 영향변수로 나타났다(조미환·임정빈 1991; 김재경·문숙재, 1992; 김경숙·이정우, 1993; 장병욱·이정우, 1998). 사회교환이론에서 보면 소득의 보상효과가 비용보다 작을 때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는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에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 조희금(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생산직취업주부의 가계소득이 개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별 만족도에도 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의 증가로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대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이기영, 1987) 가사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주고 시간갈등을 완화하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2) 수입노동시간변수

수입노동시간은 맞벌이부부 생활시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eith & Schafer, 1980; Staines & Pleck, 1983; 1985; Voydanoff & Kelly, 1984; Voydanoff, 1988; 森ます美, 1989; 조은숙, 1989; 구혜령, 1990, 이현아, 1994에서 재인용). 한경미(1995)의 연구결과에서 시간갈등이 취업주부의 전체 생활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인 가정, 직업, 여가만족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과 생산직 주부의 주당 수입노동시간이 길수록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킨다(조희금, 1999). 수입노동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주부의 평일 시간사용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휴일도 균형적이지 못하다. 이는 가사노동이 나머지 생활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데도

기인한다. 소득, 직업 지위와 더불어 취업 자체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보면 수입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은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장애를 초래한다.

(3) 성역할태도변수

성역할태도는 전통 사회에서 이어져 온 성차이와 성질서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에 관해 요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홀벌이가정은 그 자체의 구조가 성역할에 의해 구성된 것인데 반해 맞벌이가정은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역할이 타파되고 있다. 맞벌이가정에서 만약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한다면 비록 부부가 모두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가정역할에 대한 부인의 기대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인 자신의 역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역할갈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면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부가 모두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부인 취업에의 지지, 그리고 부인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의식 부담의 완화로 인해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만약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차이가 있어 남편의 성역할이 진보적이고 부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면 남편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인의 기대가 크지 않아 역할갈등이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이고 부인이 진보적인 상황이라면 남편에 대한 부인의 기대가 큰 데 대해 남편은 대항하여 역할갈등은 격화될 것이고 생활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최규련 외(1995)의 연구에서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부부 서로의 결혼만족도는 높고 우울증은 감소된다.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맞벌이부부 자신 및 배우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

가사노동분담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의 담당 정도를 말하는데, 이는 맞벌이부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부부가 똑같이 돈을 버는 데 가사노동분담이 불공평하다면 한 쪽의 부담과중을 야기시킬 뿐 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가진 관계노동 또는 감정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은 부부의 관계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의 기본적인 기능은 부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역할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함으로써 부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촉진할 뿐 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활만족도도 향상시킨다. 선행연구에서 남편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고 밝혔다(도미량 외, 1990; 최규련 외, 1995; 김경신·김오남, 1996).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송혜립, 2000).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모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고(한경미, 1995), 사무직 취업주부 뿐만 아니라 생산직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조희금, 1999). 반면에 취업주부는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장병옥·이정우, 1998).

가사노동분담률은 가사노동에 사용된 총 시간 중 남편이 분담하는 시간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으면 가사노동분담률도 상대적으로 높고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맞벌이부부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시간이 자신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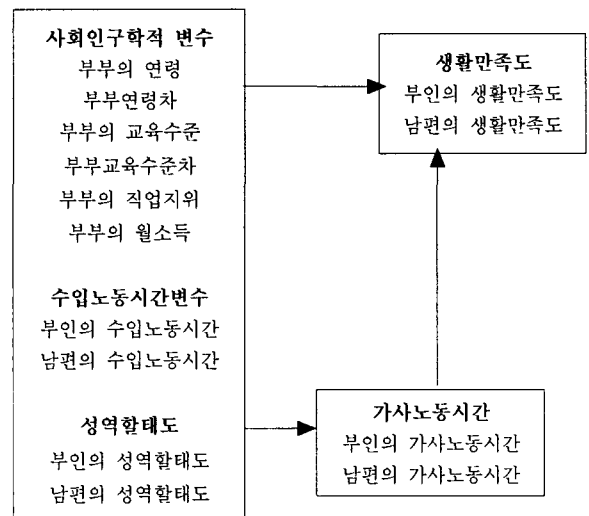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하며 가사노동 시간 및 기타 관련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 2-1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수준은 어떠한가?
- 2-2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3 맞벌이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수입노동시간변수, 성역할태도변수 및 가사노동시간변수는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시간 및 기타 관련변수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이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정의 및 척도의 구성

1)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과 남편이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서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과 남편이 주당 가사노동 수행에 투입한 총 시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시간일지표를 이용하여 평일과 휴일 중 각각 하루씩의 시간사용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노동시간의 계산방식은 평일가사노동의 각 영역별 시간의 합에 5.5를 곱한 것에 휴일가사노동의 각 영역별 시간의 합에 1.5를 곱한 것을 더한 것이다. 이는 2000년 현재 한국 대부분의 노동시장이 주 5.5일 근무와 1.5일 휴일의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이다.

3) 부인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부인과 남편이 주당수입노동에 투입한 총 시간이다. 환산방식은 가사노동시간과 같다. 즉, 부인과 남편의 주당 수입노동시간은 평일 직업노동시간과 부업노동시간의 합에 5.5를 곱한 것에 휴일 직업노동시간과 부업노동시간의 합에 1.5를 곱한 것을 더한 것이다.

4)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부인이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정살림은 부인의 책임이다"와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직장생활 능력이 뒤떨어진 다" 등의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찬성'(1점)에서 '매우 반대'(4점)로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간의 신뢰도는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각각 .50, .57으로 나타났다.

5) 직업 지위

본 연구에서 직업지위는 ① 고용 판매, 서비스, 생산의 '단순노무직'. ② 자영상인, 자영서비스, 9인 이상 자영업체 경영의 '자영직'. ③ 사무직, 전문, 기술직, 행정관리직의 '전문기술직' 등 3가지 직업유형으로 나누었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3개의 범주를 근거로 하여 가변수를 만들었으며, '단순노무직'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6) 부부의 연령차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 차이를 말하며, 계산방식은 남편의 연령(만 세)에서 부인의 연령(만 세)을 뺀 것이다.

7) 부부의 교육수준차

부부의 교육수준차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말하며, 남편의 교육년수에서 부인의 교육년수를 뺀 수치로 구성하였다.

3. 사용한 자료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기영 외 3인의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를 위한 조사자료<sup>3)</sup> 중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근거해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과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을 합한 112쌍의 맞벌이부부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시간사용의 변이를 고려하여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과, 2000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의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인 가족, 즉 남편과 부인,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기타가족원이 없는 가정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시간사용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일지표와 다른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쌍체 t검정, 일원 분산분석, 교차분석, 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와 같다.

먼저 부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인의 평균 연령은 38.6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나타났으며, 부부간 연령차는 평균적으로 2.89세로 남편의 연령이 부인보다 세 살 정도 많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보면, 부인의 경우 고졸이 71.4%로 가장 많고, 대졸이 19.6%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남편의 교육수준도 고졸이 56.3%로 가장 많고, 대졸이 36.6%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부의 교육수준차는 평균적으로 .89년으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직업은 부인의 경우 고용판매·생산·노무직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판매·서비스직(30%), 사무·기술·관리직(23.2%)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는 부인과 반대로 사무·기술·관리직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 판매·서비스(37.5%), 고용 판매·생산·노무직(18.8%)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월평균소득은 201만원-250만원이하와 251만원-300만원이하가 각각 32.2%와 25.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수입노동시간은 부인이 평균 45시간 39분, 남편이 55시간 04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약 10시간 길다.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경우 '진보적'이 75.0%로 가장

3)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족 353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전일주부 가족이 236가족, 취업주부 가족이 117가족이다.

많았으며, '매우 진보적'도 18.8%정도 돼 대부분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남편도 '진보적'이 67.9%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비교적 보수'(29.5%)가 많아 부인의 성역할태도보다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부인		남편	
		빈도	%	빈도	%
연령	20대	7	6.3	1	.9
	30대	71	63.4	51	45.5
	40대	34	30.4	60	53.6
	평균(만세)	36.8		39.7	
교육수준	중졸이하	5	4.5	1	.9
	고졸	80	71.4	63	56.3
	전문대졸	5	4.5	5	4.5
	대졸	22	19.6	41	36.6
	대학원졸	-	-	2	1.8
	평균(년)	12.7		13.6	
직업	고용 판매·생산·노무	49	43.7	21	18.8
	자영 판매·서비스	37	33.0	42	37.5
	사무·기술·관리	26	23.2	49	43.8
주당수입 노동시간	40시간이하	25	22.3	2	1.8
	40시간초과-50시간이하	63	56.3	44	39.3
	50시간초과-60시간이하	9	8.0	39	34.8
	60시간초과	15	13.4	27	24.1
	평균(시간:분)	45:39		55:04	
성역할태도	보수	-	-	1	.9
	비교적 보수	7	6.3	33	29.5
	진보	84	75.0	76	67.9
	매우 진보	21	18.8	2	1.8
	평균	5.95		5.1	
부부 연령차	부인이 높음	1		.9	
	같음	20		17.9	
	1세 - 3세미만	30		26.8	
	3세 - 5세미만	40		35.7	
	5세초과	21		18.8	
	평균(세)	2.89			
부부교육수준차	부인이 높음	1		.9	
	같음	79		70.5	
	남편이 높음	32		28.6	
	평균(년)	.89			
부부 월 평균소득	200만원이하	12		10.7	
	201 - 250만원이하	36		32.2	
	251 - 300만원이하	29		25.9	
	301 - 350만원이하	10		8.9	
	351 - 400만원이하	15		13.4	
	400초과	10		8.9	
	평균(만원)	303.3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수행시간 수준과 그 영향요인

1) 부부의 가사노동 수행시간 수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수행 수준,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평일 및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에 대한 쌍체 t검정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맞벌이부부 가사노동시간수행 수준

단위: 시간:분 (%)

항목		부인		남편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식생활 관리	식사만들기	1:03 (29.9)	1:29*** (25.6)	0:02 (11.7)	0:01 (1.5)
	설거지	0:36 (17.1)	0:53*** (15.2)	0:01 (5.8)	0:00
주생활 관리	청소	0:24 (11.4)	0:49*** (14.1)	0:01 (5.8)	0:04* (6.0)
	정원정리	0:05 (2.4)	0:06 (1.7)	0:00	0:07* (10.4)
의생활 관리	세탁정리	0:17 (8.1)	0:45*** (12.9)	0:01 (5.8)	0:00
	수선	0:03 (1.4)	0:03 (0.9)	-	-
가족원 돌보기	자녀신체 돌보기	0:15 (7.1)	0:21 (6.0)	0:02 (11.7)	0:16* (23.9)
	자녀학습 지도	0:17 (8.1)	0:23 (6.6)	0:09 (52.9)	0:26** (38.8)
	남편부모 관련일	0:06 (2.8)	0:08 (2.3)	0:00	0:04 (6.0)
구매·가정관리	시장보기	0:24 (11.4)	0:49*** (14.1)	0:01 (5.8)	0:08* (11.9)
	가계부정리	0:01 (0.5)	0:03 (0.9)	0:00	0:01 (1.5)
계		3:31 (100.0)	5:48*** (100.0)	0:17 (100.0)	1:07*** (100)

\* p<.05, \*\* p<.01, \*\*\* p<.001 부부 각각의 휴일과 평일 가사노동영역별 수행시간에 대한 쌍체 t검정의 유의 수준

부인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3시간 31분으로 한경미(1990), 이기영외(1995)의 연구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일 가사노동시간 중에서 식사만들기는 1시간 3분으로 가사노동시간 중 29.9%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다음으로는 설거지가 36분(17.1%), 청소와 시장보기가 각각 24분(11.4%), 세탁정리와 자녀 학습지도가 각각 17분(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적은 시간을 할애했 것은 수선과 가계부정리로 각각 3분(1.4%)과 1분(0.5%)이었다.

부인은 휴일에 가사노동을 평일보다 2시간 17분 더 많이 해서 평균 5시간 48분을 배분하였고 쌍체 t검정 결과 평일과 휴일



간의 시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영역별로 보면, 취업주부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일보다 휴일에 집안일을 많이 했으며, 식사 만들기가 1시간 29분 (25.6%)으로 가장 길고, 다음에 설거지 53분(15.2%), 청소와 시장보기가 각각 49분 (14.1%), 세탁정리 45분(12.9%)의 순이었다. 이것은 하루에 평균 8시간 7분(본 연구 통계의 결과)을 근무한 취업주부가 공휴일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중한 노동 부담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기영 등(2001)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 평일 가사노동 중 자녀돌보기시간이 1위를 차지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자녀돌보기시간은 중간 정도이다. 이를 볼 때 취업주부는 시간제한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가사영역에 보다 많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한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은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7분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중에서 52.9%가 자녀학습지도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른 영역은 평균 1분 정도다. 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1시간 7분으로 평일보다 많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휴일 가사노동 중에서도 자녀학습지도 시간투입이 여전히 많아 26분으로 38.8%를 차지했다. 그리고 자녀신체돌보기(16분), 시장보기(8분), 정원정리(7분), 청소(4분)에 있어 휴일이 평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비교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주당가사노동시간 총량을 통해서 비교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분

항 목	주당 가사노동시간 (분담율)			부부간차이 쌍체 값
	총시간	부인(%)	남편(%)	
식생활관리	12:33	12:20(98.3)	0:13 (1.7)	21.461***
주생활관리	4:23	4:02 (92.0)	0:21 (8.0)	9.907***
의생활관리	3:02	2:59 (98.3)	0:03 (1.7)	10.638***
가족원돌보기	6:59	4:45 (68.0)	2:14(32.0)	4.487***
구매·가정관리	3:56	3:38 (92.4)	0:18 (7.6)	9.959***
계	30:54	27:45(89.8)	3:09(10.2)	20.138***

\*\*\* p<.001

부부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경우 27시간 45분, 남편은 3시간 9분으로 그 차이가 24시간 36분이나 되었다. 분담율을 보면 부인이 89.8%인데 반해 남편은 10.2%로 부인이 9배 정도 남편보다 많이 분담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보아도 모든 영역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하위영역 별 분담율을 보면 자녀돌보기 영역에서 남편이 32.0%를 분

담한 것을 제외하면 부인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90%이상을 분담했다. 이런 뚜렷한 차이는 부부가 동일하게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상당한 노동의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설정할 때 부부가 자신의 변수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했다. 따라서 부부 자신과 부부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는 부부의 월소득변수를 제외하고4) 모두 대응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남편연령, 부인연령, 남편교육수준, 부인교육수준, 남편자영업자변수, 남편전문직자변수, 부인자영업자변수, 부인전문직자변수, 남편수입노동시간, 부인수입노동시간, 남편성역할태도, 부인성역할태도 등을 사용하였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부부 자신의 값과 배우자와의 차이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공선성진단을 통해서 독립변수들간 공선성문제를 점검하였으며,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각각 따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먼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모형의 설명력은 4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변수로는 남편전문직자변수와 부인수입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변수가 제일 크고( $\beta=-.578$ ), 다음으로는 남편 전문직자변수( $\beta=-.268$ )이었다. 즉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이 전문직인 경우에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부인수입노동시간은 부인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모형의 설명력은 24.6%이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beta=-.242$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에 적게 투입하는데, 이 결과는 조미환·임정빈(1997); 조희금(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은 장시간의 수입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수입노동의 영향을 받은 취업주부는 비록 수입노동시간이 남편보다 다소 적지만 가사노동시간에 있어 남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수입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자신의 변수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 변수의 영향도 받는다. 남편이 전문직인 취업주부는 남

4) 조사자료의 제한 때문에, 부부의 소득은 대응 사용할 수 없다.

편이 생산·노무직인 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적었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부부 모두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의 영향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 수	부인		남편		
	B	Beta	B	Beta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남편연령	-	-	-15.021	-0.216
	부인연령	-8.919	-.053	-	-
	부부연령차	52.006	.159	-4.058	-.029
	남편교육수준	-	-	31.579	.206
	부인교육수준	45.100	.109	-	-
	부부 교육수준차	69.638	.153	14.835	.078
	남편 자영직가변수	-356.810	-.235	-82.986	-.129
	남편 전문직가변수	-396.996	-.268*	-81.279	-.130
	부인 자영직가변수	247.295	.158	128.434	.195
	부인 전문직가변수	216.431	.124	5.515	.008
부부월소득	.222	.024	.466	.118	
수 시 입 간 노 변 동 수	남편 수입노동시간	6.610E-02	.068	-9.9E-02	-.242*
	부인 수입노동시간	-.565	-.578***	-4.2E-03	-.010
성 태 역 도 할 변 수	남편 성역할태도	-13.226	-.017	5.227E-02	.000
	부인 성역할태도	99.533	.118	-18.646	-.053
상수	2118.240		683.432		
R <sup>2</sup>	.421		.246		
수정된 R <sup>2</sup>	.344		.146		
F값	5.471		2.463		
Sig	.000		.006		

\* p<.05, \*\*\* p<.001

2.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일치정도

본 절에서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부부간 일치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았다.

1) 부부의 생활만족도 수준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각각 3.25, 3.16으로 중간 정도이고 부인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쌍체 t검정 결과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포를 보면 부인의 경우 '보통'이 56명(50%)으로 가장 많고, '만족' 42명(37.5%), '불만' 14명(12.5%)의 순이었다.

<표 5>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

(N= 112쌍)

	부인		남편		부부 (N=224명)
	빈도	%	빈도	%	
매우 불만	-	-	1	.9	1(.5)
불만	14	12.5	21	18.8	35(15.6)
보통	56	50.0	51	45.5	107(47.8)
만족	42	37.5	37	33.0	79(35.3)
매우 만족	-	-	2	1.8	2(.9)
평균(표준편차)	3.25 (.66)		3.16 (.78)		3.21 (.72)
부부간 차이 쌍체t값 (Sig)					1.421 (.158)

2) 부부의 생활만족도의 일치정도

남편의 경우도 비슷하여 '보통' 51명(45.5%), '만족' 37명(33.0%), '불만' 21명(18.8%)이고 '매우 만족'이 2명, '매우 불만'이 1명으로 나타났다.

부부를 합쳐서 볼 경우 전체 224명 맞벌이부부 중에서 '보통'이 107명으로 약 반수이며, '만족'이상이 81명으로 약 3분의 1 정도, '불만족'이하가 36명으로 약 6분의 1 정도였다.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서 보면 부부간에 생활만족도가 일치한 경우는 71쌍으로 전체 112쌍 부부 중 63.4%를 차지하였다. 일치하는 부부 중에서 둘 다 '불만'을 느낀 부부는 전체 부부의 8.0%, '보통'이 30.4%, '만족'이 25%로 나타났다.

<표 6>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

		부인						계	
		불만		보통		만족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편	불만	9	8.0	11	9.8	2	1.8	22	19.6
	보통	5	4.5	34	30.4	12	10.7	51	45.5
	만족			11	9.8	28	25.0	39	34.8
계		14	12.5	56	50.0	42	37.5	112	100

반면에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불일치한 36.6%의 부부 중 부인이 '만족'하고 남편이 '보통'인 경우가 전체 부부 중 10.7%로 가장 많았고, 부인이 '보통'으로 느끼고 남편이 '불만'인 부부와 부인이 '보통'인데 남편은 '만족'인 부부가 모두 9.8%를 차지했다. 또 남편이 '보통'이고 부인이 '불만'인 경우가 4.5%로 적었고, 부인은 '만족', 남편은 '불만'으로 완전히 대립한 부부는 1.8%(2쌍)로 매우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부

부간에 대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불일치한 경우에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부가 불일치한 부부 중에서 61%인데 반해,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부인보다 높은 부부는 39%를 차지하여, 생활만족에 대한 맞벌이 부부간의 느낌과 평가의 차이에서 남편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수행수준에 따라 각각 3가지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분석을 통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집단간 부부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쌍체 t검정을 통해서는 집단내 부부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 1)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부부의 생활만족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집단간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집단간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높은 집단의 부인이 남편의 가사노동이 낮은 집단의 부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송혜림(2000)의 맞벌이가정의 남편가사노동참여에 따른 부인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지지하였다.

남편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집단별 남편의 생활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투입이 4시간 이하의 집단에 비해 4시간을 초과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부부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유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집단별 부부간 생활만족도의 차이 비교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 하위 집단별로 부인과 남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쌍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인 가사노동시간이 25시간 이하인 낮은 집단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30분 초과 4시간이하인 중간 집단에 있어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낮은 집단에서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남편보다 높은 데, 부인은 자기의 가사노동부담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남편의 생활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에서는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부인보다 상당 수준 낮았는데, 이것은

<표 7>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

	빈도	부인 생활만족도		남편 생활만족도	
		평균	Scheffé Test	평균	Scheffé Test
부노동 가사 시간	25시간이하	47	3.30*	3.04	
	25시간-35시간이하	39	3.26	3.31	
	35시간초과	26	3.15	3.15	
	F값(Sig)		.392 ( .677)	1.246 ( .292)	
남노동 가사 시간	0.5시간이하	58	3.07	a	a
	0.5시간-4시간이하	27	3.26**	ab	a
	4시간초과	27	3.63	b	b
	F값(Sig)		7.309 ( .001)	12.198 ( .000)	

\* p<.05, \*\* p<.01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집단별 부부간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한 쌍체 t검정의 유의 수준

이 집단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부인의 복지는 가져올 수 있지만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이 외부적 동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복지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가사노동 수행 동기가 태도가 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4.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설정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과 같으며, 다만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변수를 첨가시켰다. 독립변수간의 공선성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 1) 부인의 생활만족도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39.8%로 비교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부부연령차, 부인전문직가변수, 부인성역할태도, 남편가사노동시간, 부인가사노동시간이었다. 즉,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전문직 취업주부인 경우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부인전문직가변수( $\beta=.338$ )가 제일 크고 다음으로는 부부연령차( $\beta=.261$ ), 부인가사노동시간( $\beta=-.248$ ), 남편가사

노동시간( $\beta=.237$ ), 부인성역할태도( $\beta=.198$ )의 순이었다.

부인의 직업지위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 결과는 조희금(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직업지위는 여성취업이 어려운 상황 아래 취업주부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취업주부 취업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다중 부담을 경험하지만 직업지위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 노동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의 연령차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변수인데, 본 연구에서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다른 변수가 통제된 경우에 남편의 연령이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면 부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남편에 대한 의외심이 상대적으로 강해져 생활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앞에서 본 분산분석과는 달리 생활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결과(장병옥·이정우, 1998)를 지지한다. 가사노동은 시간이 제한된 취업주부에게 일-가정갈등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다. 조희금(1999)의 연구에서 일-가정갈등이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가사노동이 일-가정갈등을 통해 사무직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끼쳤다. 가사노동은 시간을 소비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주부에게 심리적·생리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시간투입이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앞의 분산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부담은 맞벌이가정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남편들이 부인의 취업에 상관없이 가사노동을 적게 분담하는 사회분위기 하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부인의 심리적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많을수록 가정에서의 산출을 증가시키고 부인에게 가사노동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므로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자기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취업주부는 자기의 취업을 선호하고 가정의 일이 자기의 책임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과 가정의 부담, 갈등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므로 생활만족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수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취업주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강한 책임감이 시간자원과 에너지를 제한해서 큰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에게 있어 성역할태도의 전환은 자기의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도울 수 있다고 하겠다.

<표 8>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 수	부인		남편		
	B	Beta	B	Beta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남편연령	-	-	1.529E-02	.088
	부인연령	5.439E-03	.036	-	-
	부부연령차	7.703E-02	.261**	4.859E-02	.141
	남편교육수준	-	-	.163	.425**
	부인교육수준	7.265E-02	.196	-	-
	부부교육수준차	8.232E-02	.202	-6.6E-02	-.138
	남편 자영직가변수	.131	.096	.175	.109
	남편 전문직가변수	3.162E-04	.000	-.108	-.069
	부인 자영직가변수	.164	.117	-1.3E-02	-.008
	부인 전문직가변수	.529	.338**	.136	.074
부부월소득	1.276E-03	.151	5.301E-04	.054	
수 시 입 간 노 변 동 수	남편 수입노동시간	1.802E-05	.021	1.711E-05	.017
	부인 수입노동시간	-8.4E-05	-.096	1.521E-04	.148
성 태 역 도 할 변 수	남편 성역할태도	-2.5E-02	-.036	-4.1E-02	-.050
	부인 성역할태도	.149	.198*	.176	.199*
가 시 사 간 노 변 동 수	남편 가사노동시간	5.043E-04	.237*	6.175E-04	.248*
	부인 가사노동시간	-2.2E-04	-.248*	5.960E-05	.057
상수	.902		-1.479		
R <sup>2</sup>	.398		.280		
수정된 R <sup>2</sup>	.304		.167		
F 값	4.226		2.483		
Sig	.000		.004		

\* p<.05, \*\*p<.01

2) 남편의 생활만족도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24.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이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고 가사노동시간을 많이 투입한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교육수준변수( $\beta=.425$ )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가사노동시간( $\beta=.248$ )과 부인의 성역할태도( $\beta=.199$ )의 순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결과는 임정빈·이종숙(198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교육수준은 사람의 인적자원으로서 다른 자원과 행위,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고 소득도 높다.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교육수준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현대정보사회와 같은 지식과 경쟁의 상황 하에서 교육수준이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분산분석 결과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집단에 따라 자신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가정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부인의 심리복지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부부의 상호작용 때문에 자연히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실태를 볼 때 관계노동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남편 스스로 가사노동참여에서 오는 산출에 대해 만족하는 느낌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자기의 생활만족도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하겠다.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찾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최규련이 1984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비록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남편 집단간의 결혼만족도 차이는 정적인 경향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최규련의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에게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에의 분담 요구가 강한 반면 남편의 수단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경우 남편의 가정부양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남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부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정의 생활양식도 달라지는데, 이것이 남편의 생활에 대한 느낌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앞의 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매개변수로 하고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경로모형을 통해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 <그림 2>와 같은 경로모형이 제시되었으며,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의 직접적인 인과효과와 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부부연령차, 부인의 전문직가변수, 부인의 성역할태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같은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매개로 하여 남편의 전문직가변수,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부인의 수입노동시간 등 세 변수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변수들의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남편의 전문직가변수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경유하여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주었다. 즉, 남편이 전문직인 취업주부는 남편이 생산, 단순노무직인 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적으므로 가사노동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업한 부인은 자기의 직업지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만 아니라 남편의 직업지위의 간접적인 영향도 받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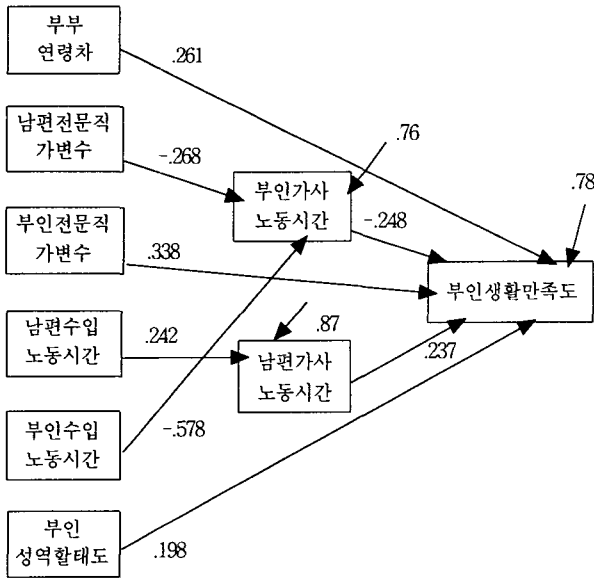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경유하여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부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부담이 더 가중되어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가정에 있어서 가사노동부담문제는 가정 내에서 부부가 실제로 부딪치는 문제로서, 부부 모두가 수입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수입노동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면 부인의 시간갈등과 부담과중은 완화되고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변수와는 반대로 자기의 가사노동시간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조희금(1999)의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아마 본 연구의 표본이 전일제 주부와 시간제 주부를 같이 포함했기 때문일 것이다<sup>5)</sup>. 이 모형에서 취업주부는 주당 수입시간이 많아지면 시간제약으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가사노동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으로써, 부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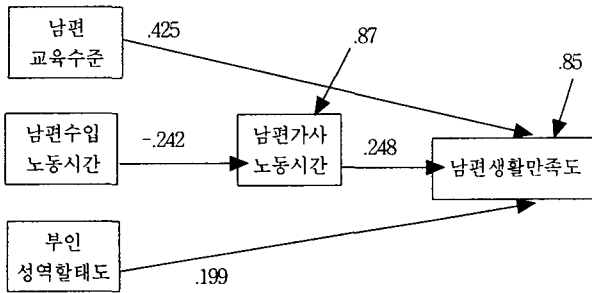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면 맞벌이가정 부인이 경우 자기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이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거나 자기의 가사노동부담이 적을수록, 남편수입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자신이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수록, 자기와 남편 모두 전문적인 경우, 그리고 남편과 연령차가 큰 취업주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경우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나 간접적인 영향요인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남편의 수입노동시간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5) 본 연구에서 주부의 주당수입노동시간의 분포는 기본적으로 주당 6시간에서 96시간까지이다.



<그림 2> 부인의 생활만족도의 경로모형



<그림 3> 남편의 생활만족도의 경로모형

남편이 수입노동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남편 자신의 생활만족도도 낮춘다. 남편이 수입노동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비록 직업에서의 산출이 많고 가정 경제에의 기여가 많을지라도 가사노동의 산출이 없고 가사노동을 통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6. 맞벌이부부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비교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8>과 <표 9>를 참조).

<표 9>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수의 인과효과

변 수	부인 생활만족도			남편 생활만족도		
	총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부부연령차	.261	.261				
남편교육수준				.425	.425	
남편전문직가변수	.066		.066			
부인전문직가변수	.338	.338				
남편수입노동시간	-.057		-.057	-.060		-.060
부인수입노동시간	.143		.143			
부인성역할태도	.198	.198		.199	.199	
남편가사노동시간	.237	.237		.248	.248	
부인가사노동시간	-.248	-.248				

부부연령차는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편교육수준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지만 부인교육수준은 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남편이 전문직인 경우는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지만 자기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부인이 전문직인 경우는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전문직인 경우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증대되지만 남편에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입노동시간변수에서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정적 효과를 주지만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통해 부인과 남편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부적 효과를 주었다.

성역할태도변수에서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인의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자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사노동시간변수에서 남편가사노동시간은 자기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부인가사노동시간은 부인 자신의 생활만족도에만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두 변수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수행량에 있어서의 부인과 남편의 차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차이, 부인의 취업에 따른 의식의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의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27시간 45분이고 분포범위가 0시간 ~ 72시간 23분인데 반해, 남편은 평균 3시간 9분이고 분포범위가 0시간 ~ 27시간 8분이다. 부인이 총가사노동의 90% 정도를 분담하고 있어서 부인과 남편 간에 가사노동 수행량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남편은 자기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의 60%이상의 시간을 가족돌보기에 할애함으로써 부부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에서 볼 때 취업한 주부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반복적이고 잦다한 가사노동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자연히 부담이 더 가중되어 생활만족도도 낮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남편은 가사노동시간 수행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계성이 강한 가사노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사노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간 의사소통도 좋아져서 자연히 생활에 대한 느낌이 좋아질 것이다. 비록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시간의 절대량은 적지만 가사참여를 증가하는 것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사회적 상황 하에서 부인을 만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는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에 달하고 남편보다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부부간 생활만족도가 대부분 일치하였다.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 수행량은 기본적으로 약 30시간 정도이며, 이 중 90%는 취업주부에 의한 것이다. 맞벌이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들이지만 가사노동이 불균형하게 분담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취업주부가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와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에 있어서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많은 제약을 주며, 이러한 제약 하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이 그대로 유지되면 노동과 중을 야기해서 주부의 건강과 정신 등 다방면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주부의 수입노동시간이 감소할지라도 이것이 가

사노동시간의 증가와 연계되면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감소되게 된다. 그러므로 주부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수입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도 동시에 요구된다.

셋째, 부인가사노동의 과중한 부담은 부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저하시켰으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부인의 생활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하면 부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기와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장애를 만들었다. 이는 생산력이 발달한 현 상황 하에서 남편의 장시간 직업노동이 부부의 생활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가져옴을 보여준다.

한편 부인 자신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등, 남녀평등이 날로 향상되는 현대사회에서 부인 자신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또 부인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가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생활만족도도 향상시키는 것을 보면 시대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취업주부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하면 '취업'과 '주부'간의 갈등을 더 경험하게 되고 직업만족과 가정생활만족은 상호 영향을 주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취업주부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생활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남편의 생활만족도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넷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활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맞벌이가정의 남편이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가사노동분담이 한 쪽에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결코 남편 자신의 생활 만족을 높이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이 수입노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가사노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가사노동분담의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특수한 노동으로서 직업노동과 달리 관계 유지를 위한 노동이며 감정이 내포된 정서적인 노동이다. 남편이 직업에의 시간투입을 통해 경제적 수입과 사업상의 성공을 얻을 수 있지만 가사노동시간에의 투입은 정서적 이득과, 좋은 가정생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언은 남편이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돌보기 뿐만 아니라 다른 가사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의 장시간 직업노동, 직업의 압력, 성역할 경계가 분명한 현실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생활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 능력과 태도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중·고등학교 수업과정에서 남녀 구별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노동 대체상품, 특히 식생활영역의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 취업주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확대 발전해야 하고 맞벌이가정, 특히 중산층 이하의 맞벌이가정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이 저렴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언론매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맞벌이가정의 가정관리능력과 전략 교육프로그램을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교육대상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포함되어야 하며, 남편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토대로 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전일제와 시간제취업주부를 함께 포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를 나누어서 분석하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생활만족도에 주는 보다 세분화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가사노동시간을 세분화, 심층화, 다양화시켜서 측정하고 연구하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맞벌이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맞벌이부부의 생활의 질의 향상은 가정생활의 질의 향상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맞벌이가정의 생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학계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집 수 일 : 2004년 05월 14일

□ 심 사 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6일

#### 【참 고 문 헌】

기은광(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대한가정학지**, 31(3), 29-46.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의숙·서창원(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5, 425-439.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도미향·최희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5.  
 서광희·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97-120.  
 성영애·양세정(1996). 가사노동시간의 결정요인: 비취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교. **인천대학교 논문집 2제1권**, 89-106.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1), 103-115.  
 윤명희·임정빈(1985). 도시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03-118.  
 윤복자(199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151-169.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_\_\_\_\_·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_\_\_\_\_·이연숙·김외숙·조희금·伊藤セツ·天野寛子(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23-31.  
 이연숙·이기영 외(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빈·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장병욱·이정우(1998).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39-52.  
 조미환(1998).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5-20.  
 \_\_\_\_\_·임정빈(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29(2), 169-184.  
 \_\_\_\_\_(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5(4), 369-386.  
 조희금(1998). 생산직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67-180.  
 \_\_\_\_\_(1998).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9.  
 \_\_\_\_\_(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22(2), 91-102.
- \_\_\_\_\_. 서동인(1995). 맞벌이가족 연구의 현황. **맞벌이가정의가  
족문제**, 99-261. 도서출판:하우.
-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9(2), 171-190.
- \_\_\_\_\_. (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_\_\_\_\_.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  
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Kamo, Y.(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348-378.